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알선신청

- 2019년 12월부터 옆집 음식점 1층에 설치된 덕트의 시로코 팬(송풍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고기 굽는 냄새,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서 거주지에서의 활동들이 8개월째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바, 사업장에 적절한 해결책을 요구하였으나, 소리가 나면 창문을 닫으라는 등, 내가 창문을 바꾸면 자신들도 팬을 고치겠다는 등, 장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나는 등, 월세 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는 등, 하루 10밖에 팔지 못하는 영세 상인이라는 등, 소리가 나는 팬을 옥상으로 올리라니까 옥상에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다는 등, pos기기의 주문소리, “배달의 민족, 주문~”, “기사가 배정되었습니다.”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스피커 소리를 크게 해 놓아 열려진 뒷문을 통해 다 들림, 배달 오토바이가 올 때마다 오토바이의 큰 배기음과 각종 소음이 다 들림, 이러한 모든 문제점들의 해결점은 나에게 있다면서 떠넘기고, 답답한 나머지 내가 덕트 업자를 불렀더니 자신들이 해결할 것이라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내가 스스로 행동해 고쳐야 한다면서 그 어떤 조치도 해 주지 않고 있음
- 내가 사는 지역은 넓은 거주 지역임. 자신들의 경제 활동에는 악착 같고, 내가 거주하는 것은 매우 가볍게 봄. 해당 사업장은 길가 쪽에 상가 건물 1층임. 팬이라는 소리가 매우 심하다는 특징을 무시하고 1층에 설치해 놓고 사용함.

○ 재정신청

- 1년간 지속된 시설물들의 소음으로 ○○ 프로젝트의 프로그래밍을 정성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만들고, 소음을 피해 집에서 나가 있게 되고 집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원고 ○○은 근 40여년을 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자입니다.
- 피고 ○○의 ○○는 원고의 앞 건물에서 음식점을 4년 이상 또는 6년째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의 ○○는 원고에게 말하길 자신은 전에 똑같은 음식업을 하는 자에게 고스란히 모든 시설물들을 물려받아서 4년간 장사를 했다고 하면서 각종 시설물들 중 덕트,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4년을 넘게 사용했다고 원고에게 말했습니다. 고압 환풍기는 원고와의 소음으로 인한 다툼 중에 업자를 불러 변경(2020년 1월 31일)한 사실이 있습니다.
- 피고 ○○의 ○○는 원고의 앞 건물에서 배달 전문식당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자입니다. ○○의 ○○는 덕트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원고가 정확한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번 소음 문제로 인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피고가 처음 이사를 와서 영업을 시작한 것을 원고가 본 것으로 3년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쯤 되던 초여름에 중고 에어컨(크기가 매우 큰)을 골목 끝부분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는 현재 상호가 ○○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1)

- 저희가 도대체 무슨 죽을죄를 지었다고 ○○님은 허구헌 날 아침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현관 문 앞에서 서서 한없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 저희가 현재 이곳에서 장사한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이웃들과 얘기해보면 사람들도 ○○ 님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웃에서도 신고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의 의견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진짜 어렵고 힘들고 죽겠는데, 정말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 님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니 너무 걱정되고 힘듭니다.
- 전에 썼던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 정말 도대체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이후 환풍기도 교체했습니다. 남들에게 피해 안주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장사도 어렵고 누구에게 퍼줄 돈도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 ○ ○ (피신청인2)

- 저는 2019년 1월경 위 영업장의 기존 영업점인 ○○ 으로부터 기존환기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주고 계약하여 도시가스 외 덕트 교체 같은 별다른 공사 없이 그대로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 제가 영업하고 있는 건물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같이 있는 3층 건물로 1층에는 저희 ○○ 외에 ○○ 홀 있는 식당 배달업이 있습니다. 2층부터는 주거공간으로 다른 이웃들이 거주하고 있고 저는 현재 ○○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저희 ○○는 홀은 없는 한식 야식 배달과 포장만 전문으로 하는 매장입니다. 영업시간은 2019년 개업부터는 약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영업을 하였고, 현재는 평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매주 월요일이고 영업시간은 준비과정에 따라 다소 불규칙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얘기하는 덕트는 조리 시에만 켜다가 끝나

면 바로 끄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의 집은 저희건물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희 매장이 사용하는 다른 소음이 날수 있는 실외기와 컴퓨터 등은 저희 영업점 앞쪽 신청인집 반대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덕트 모터 아래쪽으로는 ○○의 실외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은 평소 대표인 저와 아르바이트직원 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은 저희가 영업을 시작한지 약 10개월가량 지난 후 어느 날 저희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덕트가 시끄러우니 공사하라고 하는 게 이 일의 시작인 듯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매장 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전문업체를 불러다가 확인해봤습니다. 덕트 모터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전부 빼내기에는 모터의 용량이 작게 시공되어 있다고 하고 혹시 덕트 안에 기름이 고여 그럴 수 있다고도 하여 정비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다른 이웃집에도 소음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바로 위에 집에도 여쭙보면서 소음을 못 느낀다고 말씀해주셔서 저희 덕트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신청인 이외에는 아무도 저희 매장의 덕트 모터 등 소음에 관하여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이후 신청인은 그 후로도 몇 번씩 찾아와 덕트를 교체하라며 명령조로 200만원도 없어서 공사를 안 하는 거냐 하면서 으름장을 놔왔고,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맞서 큰소리로 얘기하니 화가 났던지 저희 쓰레기를 발로차 위협하면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벌써 여러 번 찾아와 무조건 공사하라는 식으로 인상을 쓰고 재촉하였고, 어느 때는 조용히 매장문을 열고 쳐다보며 나와 보라 손짓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제가 혼자 있는 것을 보거나 당시 여자 아르바이트직원만 있을 때만 그렇게 찾아오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대응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신청인이 관청에 민원을 넣고 소음을 측정하던 어떤 식으로든 법적인 해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휴대폰 어플로 소음도 측정해 보고, 덕트 주변에 차음벽도 만들어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신청인은 가게 문에 글들을 적어 붙였고 경고장도 붙여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 그러던 중 드디어 신청인이 환경과에 민원을 넣었는지 사람이 나와서 소음측정 한다고 들었고 2020년 5월 20일 저녁 6시경 환경과 사람이 신청인의 자택 방에서 소음 수치를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자택 방 안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면 제가 덕트가 꺼진 상태에서 다시 켜올 때 소음수치를 재는 방법이었고 측정된 수치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없다고 판명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 억울한 맘이 해소되는 것 같아 가슴에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 여지껏 아무래도 우리가 약자다 생각하고 실외기 바람이 거슬린다 음 악소리가 시끄럽다 문 여닫는 소리가 자주난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 같다 주문소리가 크게 들린다. 등등 시시때때로 경찰을 부르며 구청에 신고를 하고 대문에 써다 붙이고 정말이지 저도 ○○ 사장님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습니다.
- 최근에는 또 다시 환경과에서 나온 분이 냄새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매장을 점검하고 가셨습니다. 아마 신청자가 이번엔 냄새를 가지고 또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나오셔서 사진도 찍어가며 점검하시고는 내부 상태도 덕트 상황도 깨끗한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저는 기존에 영업하던 매장설비를 그대로 인수받아 더하고 덜한 것 없던 덕트가 이제 와서 그것도 영업시작한지 거의 10개월 만에 왜 시끄러워 진건지 의아합니다. 혹시나 기계고장일까 했지만 아닙니다. 신청자는 무슨 전문가인 듯이 얘기하듯 무슨 팬을 교체하면 된다 공사비

200만 원정도 나온다 말하지만 이 상황이 과연 맞는 것 인가요?
하물며 합의하자고하는 대화중에 자신의 집이 아닌 1층집까지 처리해
달라는 식의 얘기가 과연 옳은 건가요.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사업장(음식점, 상가)과 주거가 혼재되어 생활소음원의 영향으로 정온한 환경은 아니다.

나. 신청인 주거 건물 현황

- 위 치 : ○○구 ○○로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연 면 적 : $163m^2$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1가구)
- 주 용 도 : 주택
- 구 조 : 연와조
- 사용승인 : 1988.10.12.

다. 피신청인 영업 건물 현황

- 위 치 : ○○구 ○○로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연 면 적 : $182m^2$
- 규 모 : 지상3층(2가구)
- 주 용 도 : 근생,다가구용단독주택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연와조
- 사용승인 : 1996.9.20.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총간소음 피해 평가

- 소음 측정자료 및 현지조사 등 사실조사를 토대로 사업장 소음이 신청인 주거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였다.
- 사업장 소음측정 결과

일 시	측정기관	측정결과[dB(A)]		
		배경소음	측정소음도	대상소음도
2021.6.24.(목) 14:34	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49.9	52.5 (○○1)	평가불가 ^③
			51.0 (○○2)	평가불가 ^③
			53.9 (○○1 +○○2)	53 ^①

※ 비고

- 평가불가^③ :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3dB(A) 미만으로 배경소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평가불가
- 생활소음 규제기준 : 사업장(기타) 소음 55dB(A)이하[주간]

4. 판 단

- 신청인 주택에서 소음도 측정결과 피신청인 사업장의 기계 설비 소음 보다 배경소음(주변소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측정되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현재 소음 분쟁의 대응방법에 있어서 당사자 간 심려 깊지 못한 언행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앞으로의 주거환경에서 서로의 소중한 생활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행동할 것을 권고한다.

5.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